

# “국립대 미성년자 참여 논문 458건” 대입 ‘부모찬스’ 논란

## 2020 교육위원회 국감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집중 추궁  
소속 허위 기재 등 질타 잇따라  
“아무에게 실험실 빌려주냐” 비판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입시비리 문제와 관련한 공세가 연일 펼쳐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2일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다. 이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들의 고교시절 논문 포스터 공동 저자 등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37개 국립대를 조사했더니 26개 대학에서 458건의 미성년자 참여 논문이 발견됐고, 연구부정 34건, 조사 중이 158건”이라며 “미성년자 연구참여 부정사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느냐”고 오 총장에게 물었다. 오 총장은 “서울대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서 의원이 언급한 해당 통계는 나경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뉴시스

원 전 의원의 ‘아들 특혜’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특혜’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을 공개하며 다시 불거졌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 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 공동 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여당과 나 전 의원 측은 설전을 벌여 왔다. 여당이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는 나 전 의원이 교수에 아들들을 부탁했고, 대학원생이 김 씨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해 학회 발표자로 참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은 김 씨가 제1저자로 쓴 논문이 적격성을 인정받았고, 부탁할 때 의원 신분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나 전 의원의 부탁 당시 신분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나 전 의원은 아들 ‘부탁’ 당시 일반인 신분이었으므로 권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

면서 “당시 나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서울대 조빙교수이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정청래 의원은 “당시 나경원씨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논문 저자 표시를 보면 ‘대학원(graduated school)’에 소속돼 있다고 나온다”며 “사실상 공문서인데도 소속을 잘못 적은 것은 잘못이고, 이는 형법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 씨가 서울대 윤모 교수로부터 같은 대학 의대 의공학 연구실을 1개월가량 제공받은 것 역시 특혜라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나 전 의원의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로 전해지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의 아들이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겠다고 하면 서울대가 실험실을 한달 동안 빌려준다거나 대학원생에게 연구 노트를 검토하라고 한다거나 연구비로 발표비용을 대주겠느냐”며 “나경원 씨가 ‘엄마 마음’이라고만 하는데 명백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과기대에서도 불거진 ‘아빠 찬스’에 대한 질타가 이어

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과기대 교수의 아들 A씨가 해당 대학에 편입학해 66학점을 들었는데, 그 중 24학점은 ‘아빠’ 수업을 듣고 모두 A+를 받으며 대학과 대학원에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입학 과정에서도 7등이었던 A씨가 2등과 5등 학생을 재치고 편입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과의 결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은 “A씨 사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편입학 과정에서 순위가 뒤바뀐 일은 알지 못한다”면서 “2년 전 국감을 통해 ‘상피제’ 관련 제도를 정착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대,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오세정 총장에게 나경원 전 의원 아들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쏠렸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 한남대·한양대에리카에 ‘첨단 산단’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연내 착공, 2022년 조성 계획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모아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한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교지를 첨단산업단지 조성해 기업입주 공간, 정부의 산학연 협력,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작년 8월 공모에 참여한 32개 대학 중 3개 대학이 선정된 이후, 1년여 만에 첫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 산업단지 2



한남대(왼쪽)와 한양대 에리카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교육부

곳이 지정됐다. 두 곳은 연내 착공해 2022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한 곳인 강원대학교는 연내 산업단지 지정이 추진된다.

산업단지 면적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가 각각 3만1000㎡, 7만8579㎡로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기존 대학 부지인 자연녹지지역(용적률 100%)을 모두 준

공업지역(용적률 400%)으로 변경해 최대 4배의 밀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국비를 보조해 건축하는 기업임대 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는 각 대학에 2만2300㎡(건축물 연면적) 규모로 2022년 기업 입주율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곳은 업무공간뿐만 아니라 기업 간 교류가 수시로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한용수 기자 hys@

## 신입 4명 중 3명 “입사 석달 내 퇴사 결심”

인크루트 신입사원 대상 설문

결심 이유 1위 상사 잔소리, 업무

대부분의 신입사원이 퇴사고민을 한 가운데, 이들이 퇴사를 결심하는 기간은 입사 후 3개월 전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크루트가 입사 1년차 미만 신입사원 619명을 대상으로 ‘퇴사결심 시기 및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먼저 설문에서 참여한 신입사원 가운데 89.5%는 퇴사를 고민해봤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선택)로는 ‘상사 잔소리 및 업무방식’(15.0%)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14.5%) ▲

연봉(13.1%) ▲업무가 적성에 안 맞아서(3.5%) ▲업무강도(9.3%) ▲사내정치(7.5%) ▲워라벨, 근무시간(7.3%) ▲복지, 복리후생(6.6%) ▲인사, 승진(6.2%) ▲진로변경(4.8%) ▲위치, 교통편(3.8%) ▲결혼, 육아(1.4%)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했다.

한편 이들에게 퇴사결심은 어느 정도 기간을 기준으로 두는지 물었은 결과 ‘입사 후 3달 전후’(43.2%)가 가장 많았고, ▲1년 전후(25.1%) ▲한달 이내(23.9%) ▲1주일 이내(5.9%) 순으로 퇴사를 결심하는 기간이 집계됐다. /이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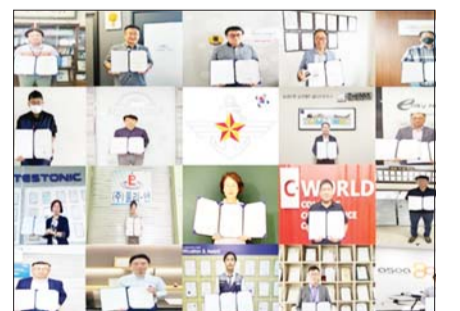
## 방한복 등 軍 우수 상용품 제품 지정

36개 기업 수여... 판로 확대 지원

국방부는 22일 육군회관에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우수 상용품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201개 기업 258개 제품이 참여했다. 이날 국방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전체 수여 대상 기업 36개 중 대표로 5개 기업만 참여하고, 그 밖의 기업들은 비대면(우편발송)으로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Fnc의 기능성 방한복, 한국쓰리엠의 차량후부 반사지, 유니온라이트의 이동식 투광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지정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국방부

등, 형제파트너의 전기동력운반차, 아이에이치피엠의 충전식예초기 등이 지정서를 대표로 수상했다.

국방부는 군사용으로 적합관정을 받은 품목(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조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시행 최초로 국방부장관 명의의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발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형철 기자 captim@

## 세종대 일자리사업단 ‘엔택트 스튜디오’ 구축

세종대 취업지원처 대학일자리사업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강의에서 비대면 강의로 전환됨에 따라 비대면 전용 공간인 ‘엔택트 스튜디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학생회관 1층 대학일자리사업단에 구축된 ‘엔택트 스튜디오’는 학생들이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강사의 음성, 물론 교재와 필기 내용까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대형모니터와 함께 강사모니터, 웹캠, 조명, 스마트펜 등의 장비를 설치했다. 이를 활용해 2020년 상반기부터 비대면으로 각종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 전문대교협, 온라인 원격연수 공간 개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온라인 원격연수와 오프라인 집합연수를 병행하는 혼합연수 체계(BTS) 구축을 위해 역량개발지원실 내 ‘온라인 원격연수 전용 스튜디오’를 정식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온라인 원격연수 전용 스튜디오를 통해 전문대학 교직원의 원격강의 제작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기반의 교수학습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온라인 원격연수 전용 스튜디오’의 특징을 보면 ZOOM(영상회의 도구)을 활용해



온라인 원격연수 운영 단체사진. /전문대교협

양방향 온라인 원격연수를 진행하고 강연자와 참석자간 실시간 소통과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현진 기자